

## 프랑스어 유추 사전의 구조 및 원리 연구\*

-P. Boissière의 『프랑스어 유추 사전』과 그 이후-

이현주\*\*

### -차 례-

1. 머리말
2. 유추 사전 정의의 모호성
  - 2.1 유추 정의의 모호성
  - 2.2 유추 사전이란
3. 유추 사전의 사례분석
  - 3.1 유추 사전의 원형 : 『부아시에르』
  - 3.2 현대 사전에서의 유추 사전적 전통 : 『로베르』
4. 맺음말

---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21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불어불문학과/부교수

[국문초록]

유추 사전은 단순히 어휘 의미의 이해 및 해석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의 교육적 목적, 즉 독자의 어휘력 증진 및 고급화를 목표로 한다. 어의적(sémasiologique) 접근 방식이 아닌 명칭론적(onomasiologique) 방법론을 사전에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전의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사전을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할 도구로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추 사전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의 사례가 드물기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18세기 백과사전 이후 사전 지식과 어휘를 접목하고 일반 시민의 언어의 수준을 고취하고자 하는 배경하에서 19세기부터 유추 사전이 발간되었지만. 그 후 프랑스 사전은 많은 형식적 변화를 겪는다. 그 변천 과정 안에서 유추 사전의 특징이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프랑스 사전의 독창적인 특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사전들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유추, 유추 사전, 의미 관계, 의미장, 부아시에르, 로베르 소사전, 라루스 유추 사전

## 1. 머리말

본 연구는 그 개념과 형식이 혼재되어 있는 유추 사전에 대해 발생 원인과 특징을 조사하고, 프랑스 최초의 유추 사전(dictionnaire analogique)인 P. 부아시에르(P. Boissière)의 『프랑스어 유추 사전』(1862)을 필두로 하여, 그 전통을 잇는 Robert社의 여러 유추 사전 중에서<sup>1)</sup> 『로베르 소사전. 프랑스어 알파벳 유추 사전』(1967/2019), 『로베르 대사전. 프랑스어 알파벳 유추 사전』(1985/2001), 그리고 『라루스 유추 사전』(1979/2007) 등을 대상으로 삼아 유추의 다양한 사전 구조적 시도와 개념적 흔적을 살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사전의 유형을 분류할 때 표제어 수에 따른 대·중·소사

---

1) 로베르 사전사의 입지적 인물 폴 로베르(Paul Robert, 1819~1980)는 사전 편찬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영-불/불-영 유추 사전에 대한 뜻을 품고 있었다. 특히 그가 법학도로서 박사논문을 작성할 때 당시 프랑스어 대사전인 『리트레Littré 사전』과 『20세기 라루스 사전』, 그리고 부아시에르Boissière, 루애Rouaix, 마케Maquet의 유추 사전을 모두 참조했으나 자신이 찾고자 하는 용어나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추후 영어 학습을 위해 유추 용어집을 구축하고자 했음을 그의 자서전에 서술하고 있다.(Robert, P., 1966: 27, 36-37, 1979 : 252) 로베르사에서 출간된 유추 사전의 이름을 단 사전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저자 강조) :

- i) 『프랑스어 알파벳 유추 사전. 단어와 사고의 연결*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Les mots et les associations d'idées*』첫번째 날권, 1950.
- ii) 『프랑스어 알파벳 유추 사전*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1-6권, 1953~1964.
- iii) 『프랑스어 알파벳 유추 사전*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보충판, 1970.
- iv) 『로베르 소사전. 프랑스어 알파벳 유추 사전*Le Petit Robert 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1967.
- v) 『보편 알파벳 유추 고유명사 사전. 로베르 소사전 2. *Dictionnaire universel des noms propres, alphabétique et analogique, Le Petit Robert 2*』, 1974.
- v) 『로베르 대사전. 프랑스어 알파벳 유추 사전*Le Grand Robert de la langue française. 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1985/2001.
- vi) 『신 로베르 소사전. 프랑스어 알파벳 유추 사전*Le Nouveau Petit Robert. 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1993.

전, 대상언어의 개수에 따른 단일어/이개어/다언어사전, 용도에 따른 해석용/산출용 사전, 대상 어휘 유형과 기술 방식에 따른 백과사전/언어사전/전문어사전/특수목적사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구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유추 사전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특히, 알파벳 순서에 따른 표제어 배열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원리로, 그리고 그 대척점에서 의미의 묶음으로 단어를 분류하는 것은 우발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식되면서, 유추 사전은 더더욱 현대 사전 구조의 적극적 논의에서 소외되었다. 특히 영미권 사전과는 다른, 프랑스 사전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유추 사전의 전통이 사전편찬의 현장에서는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데 반해서, 사전학의 이론에서는 배제된 경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베르 소사전』(이하 『로베르』)과 제휴하여 발간되고 이의 가장 충실한 계승자라고 자부하는 국내의 『삼화 모델 불한사전』이나 『동아 프라임 불한사전』에서 어떻게 유추적 속성이 축소되고 생략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개념 인식과 이해 및 의미 산출의 가장 자연스럽고도 논리적인 방법론으로서 유추의 속성을 탐색하고 앞선 프랑스어 유추 사전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잊혀졌던 사전이 담당해야 할 또 다른 역할, 즉 단어의 뜻을 찾아 의미를 명세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의 어휘력을 풍부화하거나 필요한 단어를 정확히 제공해주는 역할을 어떻게 담당할 수 있는지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2. 유추 사전 정의의 모호성

### 2.1 유추 정의의 모호성

유추 사전을 정의하기 이전에 유추의 개념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유추란 철학, 문학, 심리학 그리고 언어학 내에서도 형태론, 어휘론, 인지언어학 등에서 각기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며 논의되

는 복잡미묘한 개념이다. 이를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본고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사전의 측면에서 차용하는 유추 개념의 특징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sup>2)</sup> 본 개념의 어려움은 analogie를 우리말로 ‘유추’로도 ‘유사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점에서 드러난다. 즉, 한편으로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측면의 비례적 관계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성, 일치 관계를 모두 환기한다. 퀴틸리아누스가 은유를 유추에 의한 비유, 언어형식(figure d’analogie)으로 정의한 이후,<sup>3)</sup>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의 저작 『오르가논(Organon)』의 5장 <변증론(Topique)>과 『시학』에서 은유를 작동시키는 핵심 원리로 유추를 부각시킨다. 즉, 유추란 “두 번째 용어가 첫 번째 것과 맺는 동일한 관계를 네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이 맺는 모든 경우”이며, “노년이 삶과 맺는 관계가 저녁이 하루와 맺는 관계와 같다면 저녁을 하루 중의 노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유명한 예를 든다.<sup>4)</sup> 이와 같이 비례산(比例算)에 의거한 논리적 관계 도출이 이후 발전하게 될 실제 은유(métaphore in praesentia) 및 부재 은유(métaphor in absentia), 직유,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인지적 관점의 개념적 은유(métaphore conceptuelle)에 토대를 제공한다.<sup>5)</sup> 이렇듯 은유에서의 유추 논의 그리고 인지언어학에서의 범주 이론, 즉 구조적 유사성을 포착하는 근원적인 인지 절차로서의 유추 개념이 근 50-60년간 유추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동일성과 유사성이 강조될수록 은유와 인지언어학적 유추의 방향에, 요소들 간의 관계성에 방

2) 특히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사전 속 유추는 어휘 의미에 관련되는 바, 아래 『표준국어대사전』의 [언어] 분야에 대응되는 형태론적 측면이나 규칙과 관계된 통사론적 유추는 그 심도 있는 이론적 쟁점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지 않는다.

**유추 「4」 『언어』** 어떤 단어나 어법(語法)이 의미적·형태적으로 비슷한 다른 단어나 문법 형식을 모델로 하여 형성되는 과정. ‘서르’, ‘바르’가 ‘함부로’, ‘저절로’ 따위의 ‘-로’에 유추하여 ‘서로’, ‘바로’로 변화하는 현상 따위이다. ≒아날로지.

3) Bordas, É. (2003: 29)

4) Bordas, É. (2003: 36), Hilgert, E. (2016: 77-78)에서 재인용.

5) 실제 은유란 ‘a(노년) : b(삶) 이면 c(저녁) : d(하루) 이다’ 일 때, ‘삶의 저녁인 노년’과 같이 a와 c가 동시에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재 은유는 ‘삶의 저녁’과 같이 a가 c로 대체된 경우를 말한다.

점이 놓일수록 의미론과 사전학적 유추의 개념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겠다. 조금 더 어휘론에 방점을 두어 유추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자.

- 1) analogie : (‘대응’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 어떤 단어가 유추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다른 단어의 모델을 따라서 동일한 최소절차 (microprocessus)를 활용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 유추에 의해 형성된 일련의 단어들은 어휘생성의 최소체계 (microsystèmes lexicogéniques)를 구성한다. <프랑스어 어휘론 사전>
- 2) analogie : 의미상 가까운 단어들, 즉 하나의 의미장을 이루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 <로베르>

우선 『프랑스어 어휘론 사전』<sup>6)</sup>은 1)에서 인용된 설명문 다음에 *aqueduc*(1518)(‘수로’)을 바탕으로 한 *viaduc*(1828)(‘육교’), *oléoduc*(1894)(‘송유관’)의 연쇄적인 어휘 생성과 *tiers-monde*(‘제3세계’)에서 유추어인 *quart-monde*(‘제4세계’)가 형성된 것 등 수많은 예시를 제시하면서 준형태소에 의한 일련의 합성어 계열이 20세기 이후 확고한 언어현상으로 자리매김했음을 강조한다. 『어휘론 사전』이 형태론적 유추에 근거한 기표 차원의 유추 정의에 기울었다면, 『로베르』의 정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론적 유추에 가깝다. 즉, 공동의 의소가 발견되는 단어들 사이를 일컬으며 기의 차원의 유추를 제시한다. 그러나 유추 사전에서의 유추는 형태론적 관련어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의미관계를 촉발할 것이므로 『로베르』의 사전적 정의에 더욱 근접하다고 하겠다.

『로베르』는 유추어를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의 발생 원리로서의 유추를 의미의 확장, 축소, 비유, 은유, 환유 등의 기제와 함께 뜻풀이 앞에 필요할 때마다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메타어휘 표지를 일러두기에서 정의해두고 있는데, ‘유추’에 의한 의미생성 원리를 3)과 같이 설명한다.

---

6) *Dictionnaire de lexicologie française* (2017: 34)

- 3) ANAL. (유추에 의함) : 내적인 비교를 통해 이전 의미로부터 도출된 단어 의미를 지니거나(예를 들어, 형태 또는 색에 따른 유추) 또는 보다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다는 느낌의 가치를 지닐 때 이 표지로 설명한다.

즉, 이전 의미와의 비교가 성립하거나 관계성이 있다고 느껴질 때 유추에 의해 다의성이 발생되었다는 표지를 붙인다는 것이다. 이 표지 정의문에서처럼 J. 레이-드보브가 가장 적절하고 느슨하게 유추의 속성을 언급한다. “둘 또는 여러 단어를 함께 놓았을 때 공동의 의미를 띄어서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떠오르게 하거나 다른 단어에게 이 단어를 떠오르게 하는 것”이 유추인 것이다.<sup>7)</sup> D. 호프스태터와 E. 상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어떤 정신적 구조를 다른 정신적 구조에 덧입히는 것”이 유추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끝없이 개념의 덩어릿기가 이루어진다고 했다.<sup>8)</sup>

아래 절에서는 이와 같이 넓은 의미의 유추 개념이 어떻게 사전 속에서 적용·발전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 2.2 유추 사전이란

일반적으로 유추 사전은 관련어와 참조를 활용해서 어휘 연상을 풍부히 하는 사전으로 정의된다. 큰 틀에서는 유추 사전을 P.M. 로젯(Roget)의 『시소러스Thesaurus』(1852)의 전통을 잇는 사전으로서 일종의 개념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별 사전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유의어/동의어 사전과 비슷한 성격의 사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모호한 정의가 유추 사전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장애가 된다. 본 절에서는 유추 사전들의 서문을 통해서 사전이 지향하는 목표와 특징들을 살펴서 유추 사전의 정의를 시도할 것이다.

실제 『라루스 유추 사전』(이하 『라루스』)의 서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추 사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7) Rey-Debove, J. (1989: 635)

8) 호프스태터, 상데 (2017 : 73)

- 4) [유추 사전이란] 단어들이 의미관계로 묶여있는 사전이며, 연도상으로 가장 오래된 P. 부아시에르의 유추 사전은 “사고(思考)에 의한 단어, 단어에 의한 사고”의 목록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sup>9)</sup>

『라루스』에서 언급한 P. 부아시에르의 사전(이하 『부아시에르』)은 단순히 가장 오래되었다는 사(史)적 의의뿐 아니라 유추 사전의 본질과 구조적 기틀을 확고히 했다는 데에 더 큰 가치가 있다. 4)에서 인용한 ‘사고에 의한 단어’란 언어에 대한 인식의 통로 또는 접근 방식을 말한다. 우리는 말글을 듣고 읽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행위를 통해 단어를 접할 수도 있지만 보다 능동적으로 쓰고 말하기 위해서 단어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 과정을 사고에 의한 단어에의 접근성으로 칭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대상에 대한 개념, 즉 생각만 있고”<sup>10)</sup> 적절한 어휘가 떠오르지 않을 경우가 있다. 유추 사전은 그 어휘적 공백을 메워주고 단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일시적 망각 또는 무지의 상태에서 자각 또는 깨달음의 상태로 가는 상황을 ‘단어에 의한 사고’라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아는 단어, 즉 쉽고 핵심적인 단어들을 통해서 더 전문적이거나 어렵고 모르는 단어로 자연스럽게 연쇄되어가는 인식의 절차를 돕는 사전의 기능을 일컫는다. P. 부아시에르는 서문에서 trouver(‘찾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다시금 환기하면서<sup>11)</sup> 사전의 기능을 두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한 단어의 형태를 온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전을 찾는 것인데, 그 뜻이나 불규칙한 발음, 어려운 문법사항에 대한 해법, 용례 등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서 찾으려 하는 기능, 즉 간단히 말해서 단어의 정의를 찾으려 하는 어의적(sémasiologique) 방향성의 기능이다. 둘째로는 의미를 찾기보다는 단어 자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사전을 찾을 때 구조적으로 해당 어휘를 추

9) C’est un dictionnaire dans lequel les mots sont groupés selon leurs rapports de sens, et le premier dictionnaire analogique en date, celui de P. Boissière, avait pour but d’être un répertoire « des mots par les idées et des idées par les mots » (1979 : V)

10) Boissière, P (1862 : II)

11) Boissière, P (1862 : I)

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기능은 알파벳순의 사전이 간과하는 역할이며 이러한 명칭론적(onomasiologique) 방법론<sup>12)</sup>은 산출용 사전, 주제별 사전의 구조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공통의 개념이나 습관적인 사용, 원인관계, 수단, 결과 등과 같은 명백한 방식, 즉 한마디로 유추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모든 단어들”<sup>13)</sup>을 제공하는 것이 유추 사전의 구조이다. 이렇듯, 『부아시에르』가 표방하는 유추는 앞서 J. 레이-드보브가 주장하듯이 연상가능한 어휘망을 총망라할 수 있는 관계들의 집합이다.

반면, 유추 사전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로베르』는 『부아시에르』와는 다른 사전적 성격을 볼 수 있다. 우선, 머리말의 각주1)에서 살펴 보았듯이 로베르 사전출판사는 초창기부터 유추 사전을 고안하고 있었으며 대사전과 소사전에 모두 유추 사전의 입장을 부여한다. 그러나 사전에서 어떠한 것을 유추어로 제시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동의어와 함께 의미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유추가 잠깐 언급될 뿐이다. 『로베르』의 서문 중에는 ‘의미의 순환(circulation du sens)’이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이 의미의 미시구조에 대한 소개가 있다.

- 5) 여러 정의문들은 나뉘가지처럼 조직되어 있다. [...] 정의문들은 다시금 동의어들에 의해 구분되고 반의어에 의해 명료해진다. 여러 표현들도 ‘유추’라고 불리는 그들의 동의어들에 의해 참조되고 있다.(명칭론적 기능) 동의어와 유추는 의미장을 구축한다. [...]<sup>14)</sup>

12) P. 부아시에르는 실제로 사전이 쓰기 및 말하기의 도구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미 명칭론적 사전이 산출용, 작문용 사전과 교육용 사전으로서의 의의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본 사전이 알파벳순 사전의 옹호론자들에게 받을 거센 비판과 과거의 비판을 동시에 비꼬면서 서문을 마무리한다. 이때 2세기 로마시대의 사전편찬가/문헌학자인 줄리우스 풀릭스(Julius Pullux)가 Onomasticon(‘단어의 검색’)라고 명명했던 작은 책을 언급하고 이 책이 사전이 태동하기 이전이었기에 그 이후에 나왔다면 알파벳순을 따랐을 것이라 발언했던 언어학자들을 겨냥하면서 어떤 사전은 알파벳의 순서를 따르고 다른 사전은 사과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며 이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언급으로 마무리짓는다 (Boissière, P., 1862: II ; IX-XI)

13) Boissière, P (1862 : III)

14) Les définitions multiples s’organisent en arborisation ; d’autres glosent

『로베르 대사전』은 피정의어에 정확하게 속하는 개념과 그것이 환기하는 더 많은 관념들을 구별해서 전자를 정의문, 후자를 연상 개념, 즉 유추로 보았으며, 이 두 요소 사이에 볼드체의 대문자 V(Voir)를 둠으로써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sup>15)</sup> 이는 한편으로는 “등가어로 정의문을 대체하는, 어휘론자들의 낡은 습관”<sup>16)</sup>을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의어/등가어와 유추어에 대한 매우 엄격한 구별 기준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추어와 달리, 동의어는 문맥 안에서 대체가능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의미·통사적 제약이 있는 계열체를 구성한다. 유추어 역시 피정의어와 의미적 계열체를 구성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유추의 속성 및 사전학적 시각에 근거하여 이 두 개념은 보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유추란 무엇보다도 J. 레이-드보브가 통찰한 것처럼 ‘단어로 인한 단어의 떠오름’이다. 그리고 촉매제와 그 산물이 단어일 뿐, 한 단어로 인해서 다른 단어가 촉발되는 과정은 정신적인 인지과정이며 그 의미관계가 위계, 등가, 동위, 연상 등 어떠한 의미관계이든 자명한 논리적 근거나 공동의 사회문화적 합의를 바탕으로 도출해야 하는 사고의 과정인 것이다. 유추 사전은 P. 부아시에르가 이미 160년 전 혁신한 바대로 순전한 언어의 보전(寶典)이 아니라 사고와 언어를 접목하고자 한 사고 기반 어휘 목록이며 이것이 동의어와 유추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이는 유추 사전과 동의어 사전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도 분명히 드러난다. 아래 표는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프랑스어 유추 사전인 『라루스』와 동일한 시리즈의 동의어 사전인 『라루스 동의어 사전(Larousse

---

les groupes de mots (sous-entrées) et les locutions ; les définitions sont elles-mêmes balisées par des synonymes et clarifiées par des contraires. Les expressions renvoient elles aussi à des mots qui sont leurs synonymes, appelés analogies (fonction onomasiologique) ; synonymes et analogies développent un champ de significations. (2019: XIX)

15) *Le Grand Robert* (1985 : XXXVIII)

16) P. 로베르가 직접 『로베르 대사전』의 서문(*ibid.*)에서 인용한 Hatzfeld, A. & Darmesteter, A. (1824-1900 : XV)의 사전 서문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dictionnaire des synonymes*)』를 비교한 것이다.

	Larousse 동의어 사전	Larousse 유추 사전
출판년도	1977	1979
인쇄소	Hérissey - ÉVREUX	Hérissey - ÉVREUX
크기	19x13(cm)	19x13(cm)
쪽수	446쪽 (인덱스 제외) 510쪽 (인덱스 포함)	780쪽 (인덱스 제외) 856쪽 (인덱스 포함)
수록어 수	약 20,000 항목	핵심어 약 2,100 항목 유추어 약 15,000 항목
알파벳A의 첫 15개 표제어 목록	abaissement° abaïsser abandon° abandonner abattre° abdiquer° abîme° abîmer° abject° abominable abondance abonder° abord° abordable° aborder°	abaïsser abandonner abattre abeille° abominable abondance abréger abri absence absolu abstenir(s') abstrait absurde académie acariâtre°

이 두 사전은 표제어의 선정에서부터 기술 내용까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출판년도가 비슷하고 판형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의어 사전과 유추 사전의 표제어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우선, 유추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고 동의어 사전에는 올라있는 표제어가 다수 보이며, 유추어 사전이 어원에 따라 동사 과생 명사형이나 형용사, 부사형은 부표제어로 두고 *abaïsser*, *abandonner* 등 동사 하나만을 대표 표제형으로 삼은 데 비해 동의어 사전은 품사적 다양성과 표제어의 보편성을 더 추구했다고 하겠다. 단, 동의어 사전에 ‘°’ 표시한 단어들의 경우, 유추 사전에서는 모두 다른 표제어의 연상어들로 미시구조 항목 안에 서술되어 있다. 즉, 『라루스』의 표제어 목록에 등장하지 않는

*abdiquer*(‘양위/사임/포기하다’)는 *abandonner*(‘포기하다’)의 유추어로, *abîme*(‘심연’)는 *gouffre*(‘깊은 구렁’), *abîmer*(‘훼손하다’)는 *détériorer*(‘망가뜨리다’), *abject*(‘비루한’)는 *vil*(‘비열한’), *abonder*(‘풍부하다’)는 *abondance*(‘풍부’), *aborder*(‘접근하다’)는 *rencontrer*(‘만나다’), *aborder*(‘접근하다’)는 *attaque*(‘공격’)의 유추어로 제시되었다.<sup>17)</sup> 이로부터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어휘(표제어)와 유추되는 어휘(부표제어 또는 유추어) 사이에는 일종의 난이도 또는 인지적 접근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간극이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3장에서 살펴볼 『부아시에르』의 ‘핵심어(mots-centres)’ 개념과 일맥상통한다.<sup>18)</sup>

아래의 표에서 두 사전의 기술 방식을 간단히 비교해보자. 동의어 사전의 경우, 예문을 제시하고 그 의미로 대체할 수 있는 어휘를 제시하는데 그치는 반면, 유추 사전은 총칭적 의미를 제시한 후, 그와 관련된 동의어뿐 아니라 이를 포함하거나 이것이 포함되는 환유적 인접성의 어휘들, 관련된 분야 전문용어, 기능동사 등을 다수 연상어로 제시하게 된다. 또한 비유적, 관용적 표현도 말미에 제시한다. 표는 *ciel*(‘하늘’)의 예이다. 우선 크게 세 가지 의미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 물리적 천체 공간으로서의 하늘과 둘째 종교적인 신들의 공간, 셋째는 신적인 힘, 그 자체로서의 하늘이며, 각각의 의미 아래에 관련된 어휘 및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에는 *ciel*이 포함된 성구(*phraséologie*)를 보여준다. 첫 번째 뜻에는 *voûte du ciel*(‘천공’), *zénith*(‘천저’), *arc-en-ciel*(‘무지개’) 등 하늘과 전체-부분 관계로 맺어진 어휘들, *ciel bleu*, *ciel clair*(‘푸른 하늘’, ‘맑은 하늘’)과 같은 속성 유형, *se couvrir*(‘흐리다’), *s'éclaircir*(‘개다’)하늘과 인접한 개체인 *corps*

17) *abondance*(1119) > *abonder*(1120)의 경우는 *abandonner*(1080) > *abandon*(12s.)과 달리 명사에서 동사가 파생된 경우임. (『로베르』 검색)

18) 『라루스』는 『부아시에르』와 그 이후 부아시에르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한 C. 마케(Maquet)의 『프랑스어 유추 사전』에서 ‘핵심어’의 개념을 가져왔으며 마케 사전의 1,900개 핵심어를 그대로 수용하고 100여 개의 용어를 덧붙였음을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위의 세 사전 어디에서도 핵심어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다. 추후 로베르社의 일련의 알파벳 유추 사전들은 모두 이전 유추 사전들의 핵심어 선정에 대해 그 자의적 기준을 비판한다.

*céleste*(‘천체’), *planète*(‘행성’), *astéroïde*(‘운석’), *étoile filante*(‘별뚱별’) 등, 두 번째 뜻과 연관되어 환유적 인접성을 보이는 *paradis*(‘천국’), *aller au ciel*(‘하늘나라에 가다’), *la reine du ciel*, *Vierge Marie*(‘천상의 여왕’, ‘성모마리아’) 등과 세 번째 의미로 쓰인 *remercier le ciel*(‘하늘에 감사하다’), *bénédictio du ciel*(‘하늘의 은혜’) 등이 있다.

Larousse 동의어 사전	Larousse 유추 사전
<p><b>ciel</b></p> <p>I. <i>Un ciel étoilé</i> : (soutenu, lang. litter.) <b>firmament</b>.</p> <p>II. <i>Dis, maman, quand je serai mort, j'irai au ciel?</i> = (dans ce type de contexte seulement) <b>paradis</b>.</p>	<p><b>ciel</b> (du lat. <i>coelum</i> ; en gr. <i>ouranos</i>)</p> <p><b>Espace infini qui s'étend au-dessus de nous et dans lequel se meuvent les astres.</b> <i>La voûte du ciel.</i> Firmament. / <i>Point du ciel.</i> Nadir. Zénith. Horizon [...] <i>se couche.</i> Est. Ouest. <i>Etude du ciel.</i> Astronomie. [...]</p> <p><i>Etats du ciel.</i> Ciel bleu. Ciel clair. S'éclaircir. [...] / Ciel brumeux. [...] Se couvrir. / Arc-en ciel. CELESTE. <i>Corps céleste.</i> Astre. Planète. / <i>Météore</i>[...] <i>Astéroïde.</i> <i>Etoile filante.</i> [...]</p> <p><b>Séjour de Dieu et des bienheureux.</b> <i>Aller au ciel.</i> [...] Paradis. Séjour céleste. Royaume de Dieu. [...] / <i>La reine du ciel.</i> La Vierge Marie. CELESTE. <i>Bonheur céleste.</i> <i>Bonheur éternel.</i> [...]</p> <p><b>Puissance divine.</b> <i>Remercier le ciel.</i> Providence. / <i>Bénédictio du ciel.</i> [...]</p> <p><b>Locutions diverses.</b> A ciel ouvert</p>

	(en plein air). Tomber du ciel (arriver à l'improviste). Remuer ciel et terre (employer toutes sortes de moyens pour arriver à un but). [...].
--	--

지금까지 유추와 유추 사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사전에서 더 이상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실제 사전의 미시구조, 매개구조나 표지, 선정된 유추어와 그 의미 파생 관계 및 범주를 분석한 후에 유추 사전의 속성을 포괄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 장에서는 실제 사전의 구조를 분석하고 제공되는 관련어의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참고할 사전은 아래와 같다.

- Boissière, P., *Dictionnaire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Répertoire complet des mots par les idées par les mots*, Paris, A. Boyer, 1862.
- *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Les mots et les associations d'idées*, par P. Robert, Cassablanca-Paris, SAFOR / Le Robert, 6 vol. 1958-1964.
- *Le Grand Robert de la langue française. 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2e éd. par A. Rey, Paris, Le Robert, 9 vol. 1985/2001.
- *Le Petit Robert. 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réd. par A. Rey, Paris, Le Robert, 2019.

### 3. 유추 사전의 사례 분석

#### 3.1 유추 사전의 원형 : 『부아시에르』

『부아시에르』는 처음으로 사전이 사고의 도구임을 천명한 사전이며, 단순히 최초의 프랑스어 유추 사전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 분류 유형인

유추 분류를 가능하게 하는 안정적 요소들을 충분히 확보한 사전 양식을 보여준다. 이후 20세기까지 많은 유추 사전의 모델로 언급되는 이 사전은 확고한 두 가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탄생했다. 첫째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언어의 구성요소를 잘 배치해서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문법 교육은 학교에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그 재료가 되는 언어 자체, 어휘를 가르치기 위한 노력을 교육계가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 또한 그에 걸맞는 도구, 사전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알파벳 순의 사전 구조는 단어 뜻이나 문법, 발음, 용례 정보를 이해하는 데는 훌륭한 도구지만 말과 글을 산출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의 사전적 실현을 위해서 두 가지 이론적 가설을 세우는데, 첫 번째는 언어의 이중 구조이며, 두 번째는 개념이 홀로 단독으로 인식되지 않고 연결되어 이해된다는 개념의 관계 구조이다. 이 두 가설은 『부아시에르』에서 핵심어와 유추어라는 개념으로 유기적으로 표상된다. P. 부아시에르에 따르면, 언어는 매우 독창적인 이중의 구조를 지닌다. 사고의 연상을 이끌어내는 핵심어가 기본층위에 해당하는데, 2.2절에서 언급했듯이, P. 부아시에르는 익숙한 언어에서 보다 어렵고 발달된 언어로의 이행이 자연스러운 사고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모든 언어가 두 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상용어(*langue usuelle*) 층위와 이에 덧붙여서 더 완전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언어의 층위로서 상식선보다 더 높은 지식수준의 두뇌활동으로 들어가는 용어 집합(*termes*)이 있음을 상정하였는데 이를 완성어(*langue complète*)라고 칭했다. P. 부아시에르는 상용어보다는 완성어의 층위를 두텁게 하는 데에 바로 이 유추 사전의 역할이 있다고 보지만, 상용어와 완성어는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이중의 언어 층위가 사전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자 했다.<sup>19)</sup>

19) 그는 직접 『사고의 메커니즘 *Mécanisme de la pensée*』(1883)이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상용어휘의 경우 청각적으로 발음을 듣고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경험 축적만으로도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어린 시절에도 충분히 개념 파악이 가능하지만 완성어는 따로 학습이 필요하되 상용어의 연속선상에서 축적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유추 사전의 이론적 기틀로 삼고자 했다.(Cappiello, G., 2016 : 95-96)



다) ; - **Criaillerie**, cris confus et répétés(혼란스럽고 반복적인 외침) ;  
 - **Criailleur**, celui qui criaille(정신없이 소리지르는 사람) ; - **Criant**,  
 qui fait crier(외치게 만드는) ; **Criard**, qui crie, qui a un cri perçant(소  
 리지르는 사람, 날카로운 소리를 가진 사람) - **Crier**, pousser des cris  
 (소리를 지르다) [...]

- 7) **Hourra**, cri de joie, d'applaudissement. Les Anglais disent *huzza*. (기  
 쁨의 외침. 박수치며 외치는 소리. 영국인들은 'huzza'라고 말함)

6)의 *criailler*는 형태론적 어휘장을 이루는 단어들을 수록했는데, 이  
 때 *crier* 동사와 그 파생 단위들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의성어에  
 해당하는 *Hourra*의 경우는 영어에 대한 정보를 예문으로 제공하면서  
 일종의 언어외적 주석을 달고 있다. 8)에 정리된 *cri*의 유추어들을 보  
 면, *acclamation*(환호)나 *hurlement*(울부짖음), *criaillerie*(징징대는  
 소리), *huée*(야유) 등의 소리 유형이나 *criage*(외치는 행위), *beugle  
 ment*(높고 긴 고함소리를 내기), *déblatération*(폭력적으로 상대방에  
 게 말하기)과 같은 행위 유형과 동사(*crier*) 유형과 더불어 *tempête*(폭  
 풍우)와 *chanter*(노래하다) 같은 표제어도 각각 은유(참을 수 없이 힘  
 든 소리)나 반어법(소리치다)의 의미로 수록되어 있다. 알파벳순 사전  
 과 다른 본 사전만의 특징은 숙어에서 그 면모가 드러난다. *cri*를 포함  
 한 성구, 예를 들어 *cri aigu*(날카로운 소리)나 *pousser des cris*(소리  
 를 내다), *à cor et à cri*(왈차지껄하게)뿐 아니라 *percer des oreilles*  
 (귀를 찌르다), *élever la voix*(목소리를 높이다)와 같은 *cri*를 포함하  
 지 않은 성구나 화용소(pragmatème)에 해당하는 *Qui vivie*(군대 보  
 초들의 구호), *Au secours*(사람살려!) 등까지 수록하고 있다. 아래 8)  
 에 더 다양한 예시를 제시한다.

- 8) ① *cri* 외침의 유형 : *acclamation*, *beuglement*, *braillard*, *braille*, *bruit*,  
*clabauderie*, *claim*, *clain*, *clam*, *clameur*, *cri*, *criaillerie*,  
*gémissement*, *glapissement*, *han*, *haro*, *huage*, *huée*, *hurlement*,  
*lamentation*, *piaillerie*, *pialement*, *plainte*, *pleurs*, *rugissement*,  
*rumeur*, *sanglots*, *tollé*, *vagissement*, *vocifération* ; *tempête*,

orage (은유-‘폭풍우’, ‘폭우’(‘견디어야 하는 소리, 두통을 야기하는 소리’)); épiphonème, exclamatif, interjectif (특수 범주화-‘감탄적 종결어’, ‘감탄사/간투사’)

- ② crieur 사람의 유형 : acclamateur, braillard, clabaud, criailleur, criard, crieur, gueulard, héraut, proclamateur, réclamateur, ; roquet (은유-‘발바리, 끊임없이 짚는 작은 개’를 뜻하며 사람을 지칭하기도 함)
- ③ criage 외치는 행위의 유형 : criage, claim, beuglement, déblatération, proclamation, réclamation
- ④ crier 동사의 유형 : crier, acclamer, brailler, clabauder, criailler, écrier(s’), égosiller(s’), huer, hurler, glapir, gueuler, mugir, piailler, élever la voix ; rugir(은유-‘사자의 울음소리’), chanter(반어법-‘노래하다’)
- ⑤ 굳어진 표현으로서의 외침소리 종류 : haro, hue, hurra, Montjoie!, rescousse(à la), secours (au), Qui vive ?, Viva ! Bravo !, Sauve qui peut !
- ⑥ cri와 결합하는 기능동사 : pousser/jeter des cris, échapper un cri ; étouffer/arrêter ~, rendre ~ sourd
- ⑦ 성구 : crier comme un aveugle (qui a perdu son bâton), crier comme un fou, crier à pleine gorge, crier comme un sourd ; cri sourd, crier à tue-tête, crier sur les toits, faire le diable, percer les oreilles, à cor et à cri
- ⑧ cri의 속성 형용사 - cri perçant/aigu/déchirant/fort/haut...

『부아시에르』는 아직 의미관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이전의 저작물이다. 그러므로 여러 후대의 사전학자들이 비판하듯이 유추관계와 대표 핵심어 선정, 특히 수록된 유추어의 선정에 있어서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을 따라 단어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에게는 알파벳 순서도 무의미하고 자의적인 단어의 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아래에 살펴볼 『로베르』사전의 *cri* 항목에 수록된 *cri*를 포함한 예구(例句)의 상당수와 유추어는 *bis*, *crissement*, *frottement*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아시에르』

르』에도 발견된다. 유추 사전이라는 형식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보완하여 현재 알파벳순과 유추 사전의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로베르社의 대표적인 사전을 대상으로 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3.2. 현대 사전에서의 유추 사전적 전통 : 『로베르』

1950년대부터 시작된 로베르社와 P. 로베르 및 그의 사단이 평생을 추진한 유추 사전, 일명 『로베르 대사전. 프랑스어 알파벳 유추 사전』 출판에 대한 지난한 역사는 하영동(2017), A. 레이(Rey, 2003) 등을 통해서 두루 알려져 있다. A. 레이의 증언에 따르면, P. 로베르의 첫째 목표는 프랑스어 어휘집합에 대한 언어학적 기술과 교육적 지향점을 갖는 명칭론적 방식을 잘 혼합하는 것이었다.<sup>22)</sup> 이는 더욱 정교해진 다의 세분화 작업과 각 다의 구분에 따라 연상어를 배분하거나 참조를 달아 여러 어휘들을 서로 연계하는 작업의 조화로 가능하게 되었다.

우선, 『로베르 대사전』의 서문에서 P. 로베르의 유추 사전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을 엿볼 수 있다. 『부아시에르』와 시소러스를 비롯한 주제별 사전으로부터 받은 영향은 사전의 사회적, 교육적 역할이다.<sup>23)</sup> 반면, 서문에 따르면, 특히 『부아시에르』와 19세기에 이를 모방한 부아시에르 류의 사전들은 두 가지 한계를 지니는데, 우선, 핵심어와 그 유추어들을 자의적으로 선정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전편찬자의 이데올로기적 성향 및 시대 상황을 반영하게 된 점, 그리고 둘째로 양적으로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면서<sup>24)</sup>, 알파벳 순의 모든 표제어에, 그리

22) Rey, A. (2003 : 93)

23) 『부아시에르』 서문에는 알파벳 순의 『라틴어-프랑스어 사전』과 알파벳 순서가 아닌 『프랑스어-라틴어 사전』을 고등학생에게 배포하고 라틴어를 배우게 했을 때 학습자들에게 의미의 순서가 아닌 알파벳 순서가 더 자의적인 방식이라고 말한다. (Boissière, P., 1862 : XI)

24) 하영동(2017: 180)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유추 사전이 “중심 낱말을 선정하고 뜻풀이가 없이 중심 낱말 아래에 관련된 낱말을 결집시켜 놓은 것”이라는 한계를 갖는 데 반해 로베르가 고안한 『프랑스어 알파벳 유추 사전』의 경우 뜻풀이와 관련된 유추어를 제시함으로써 단어 선정과 배열의 자의성을 극복했다고 서술한다.

고 필요한 모든 뜻풀이에 유추어를 배당한 점을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며 방대하게 유추를 다룬 것이라고 자부한다.<sup>25)</sup> 가능한 모든 뜻풀이에 대해 전방위적이고 표준적인 유추어의 분포가 『로베르 대사전』과 『로베르』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다.

이제 『로베르』에서 기술한 cri의 예를 살펴보자.

9) cri [cRi] n.m.

1. Son perçant émis avec violence par la voix. *Jeter, pousser des cris* ➤ crier. [...] *Cri de surprise, de joie, de triomphe ; de fureur, de colère* (➤ FAM. **geulante**), *de douleur, de désespoir* (➤ **couinement, gémissement, glapissement, grognement, hurlement, plainte**).
  2. Parole(s) prononcée(s) très fort, sur un ton aigu. ➤ **éclat (de voix)** *Cri d'alarme, d'appel, de détresse. Cri de guerre. Cri de dispute, de protestation, d'indignation* ➤ **braillement, clameur, criaillement, criailerie, exclamation, gueulement, haro, huée, toilé, vocifération** – *Cri d'approbation* ➤ **acclamation, 2bis, bravo, hourra, ovation, vivat**. [...]
  3. **PAR EXT.** Opinion manifestée hautement. *Les cris des opprimés* [...]
  5. **PAR ANAL.** Bruit aigre, crissement.
- **CONTR.** CHUCHOTEMENT, MURMURE.

1번에서는 *couinement, glapissement* 등과 같이 속어로서 ‘췌소리 나는 외침’, ‘날카롭게 외치는 소리’나 ‘신음 섞인 외침’, ‘울부짖음’, ‘탄식과 같은 비명’ 등의 여러 뉘앙스를 갖는 외침들을 나열했으며, 2번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고탐이나 아우성 소리, 특히, 분노나 불만, 비난, 야유 등의 함축의미를 지니는 여러 외침과 반대로 갈채와 찬사, 우레와 같은 박수를 동반한 함성을 유추어로 나열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유추어들을 다시 표제어로 삼아서 사전을 찾을 때 *couinement*을 제외한 모

25) *Le Grand Robert* (1985 : XXXVIII~XXXIX)

든 단어가 그 정의문 안이나 유추어로 cri와 crier가 등장하여 의미의 순환이 확보되고 있다. 『로베르』의 특징은 뜻풀이에 뒤이은 예구(例句)를 기본적으로 하위어, 동위어 관계에 놓여있는 연상어로 배치한다는 점이다. 그 이후 『로베르 대사전』에서 강조했던 참조 및 분리의 V. 표지에 해당하는 화살촉 표지(➤)를 따라 준동의관계 또는 다른 범주의 하위어를 이루는 유추어들이 포진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휘들이 『로베르』의 충실한 계승자라고 자부하는 『삼화』와 『동아』 불한사전에서는 통제로 빠져있는 것이다. 또한 『로베르』의 의미에 대한 메타언어적 정보, 즉 의미 확장(PAR EXT.)이나 의미 유추(PAR ANAL.)에 의한 다의성 생성이라는 의미론적 설명도 삭제되었다.<sup>26)</sup> 『로베르』의 3번 의미는 『동아』 ③에, 『로베르』의 5번은 『삼화』와 『동아』의 ⑥에 수록된 것과 동일하지만, 그 의미 파생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이렇듯이, 국내 사전에서 의미의 설명적 요소나 어휘 풍부화의 요소들이 배제된 것은 이개어 사전의 이용자들에 대한 수준 설정이나 의미 설명에 대한 제한된 설정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프랑스어 사전의 중요한 전통인 유추의 속성이 단절을 겪게 되었다 하겠다.

- 10) 『동아』 cri [cRi] n.m. ① 고향, 외침, 함성 : [...] ~ de joie 환호성 / ~ de surprise[douleur, colère] 놀라움[고통, 분노]에 찬 외침 / jeter[pousser] un ~ 고향을 지르다 [...]  
 ② 큰소리, 부르는 소리 ; (행상군의) 선전 소리 : ~ d'alarme[d'appel] 주의하라는[부르는] 큰 소리 ; ~ d'approbation 찬성의 갈채 소리 /

26) 『로베르』는 특히, 의미 확장, 축소, 유추, 비유, 은유, 환유, 일반화, 특정화의 8가지 다의 생성 기제에 대해서는 뜻풀이 앞에 밝히고자 한다. 예를 들어, 의미 '확장'과 '축소'는 아래와 같이 일러두기에서 정의하고 있다.

EXT. par extension(확장/확장에 의하여) : qui présente un sens plus large, qui s'applique à plus nombreux objets (s'oppose à SPÉCIALT.) Ne pas confondre avec PLUS GÉNÉRALT. (더 넓은 의미를 띄게 된 경우, 더 많은 대상에 적용되는 경우.(‘축소/축소에 의하여’와 반대) ‘일반화’와 혼동하지 말 것.  
 SPÉCIALT. spécialement(축소) : dans un sens plus étroit, moins étendu : s'oppose à PAR EXT. (Ne pas confondre avec PARTICULT.) (더 좁고, 외연이 덜 넓은 의미. ‘확장에 의하여’에 반대됨.(개별화와 혼동하지 말 것))

~ de guerre 공격의 함성 : ((구어)) 슬로건 [...]

- ③ 소리높은 의견 ~ public 여론 : ~ des opprimés 압박받는 사람들의 호소
- ④ (마음 속의) 소리 : ~ de la conscience 양심의 소리(가책) [...]
- ⑥ (물체의) 날카로운 소리, 금속성, 쇠붙이의 마찰 소리 (=crissement)

- 11) 『삼화』 cri [cRi] n.m. ① (기쁨·슬픔·고통 따위의) 고함, 외침, 부르짖음. jeter[pousser] un ~ 고함을 지르다. applaudir avec des ~s de joie 기쁨의 환호성으로 갈채를 보낸다. ~ de surprise 놀라움의 외침. [...]
- ② 큰소리, 부르는 소리. appeler qn à grands ~s 큰소리로 ...을 부른다. [...]
- ③ (사람들의 향의·반대·비난 따위의) 소리, 의견, 호소. ~ de réprobation contre qn ...에 대한 비난의 소리
- ④ (마음 속의) 소리 : ~ de la conscience 양심의 소리(가책) [...]
- ⑤ 울음소리. ~ du nouveau-né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 ⑥ (짐승·곤충의) 우는 소리 ; (물체의) 날카로운 소리. [...]

주지하다시피 유추 사전의 본질은 어휘의 풍부화에 있으며, 이는 본질적으로 유사성 및 관계성에 근거한다. 관계를 맺고 있는 비슷한 어휘들이 어떠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할 때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고 언어지식이 깊어질 것이다. 『동아』에서 제시한 cri의 첫 번째 뜻 ‘고함, 외침’과 두 번째 뜻 ‘큰소리, 부르는 소리’를 과연 우리말 대응어로 의미 구분할 수 있는가. 고함과 외침은 큰소리나 부르는 소리가 아니란 말인가. 이개어 사전에서의 어휘 비대칭성은 늘 아주 많은 대응어의 나열로 확률을 높여 보완하거나 예문을 풍부히 하는 등의 정의문 이외에 다른 요소들의 지지를 통해서 보정하곤 한다. 유추어 정보의 회복은 이개어 사전에서 가장 요원했던 어휘 의미의 뉘앙스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유추 사전은 개념을 환기하고 그에 알맞은 어휘를 제공하여 사전이 사용자가 가장 세밀하고 정확한 어휘를 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서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한 전략으로 매우 다양한 사전 구조를 개발하기에 유추 사전은 그 거시/미시구조가 매우 다양하다. 우선, 『부아시에르』는 독특한 거시구조를 지니고 핵심어에 대한 유추어를 각 단독 품사부터 성구까지 구분하지 않고 수록하였다. 『로베르』의 경우는 다의 의미구분에 따른

유추어를 배정하였고 cri의 경우, 크게 4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유추 사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단어의 개별적 의미 해석과 그 이해가 아니라, 개념을 환기하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휘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가장 세밀하고 정확한 어휘를 선택해서 언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어휘력 풍부화를 위한 것이다.

현재 국내의 단일어 사전과 이개어 사전은 언어사전이라는 이론화의 틀 안에서 빠르게 발전하였으나 특히 이개어 사전의 경우 수많은 전문 용어와 유추 정보는 언어외적 정보 또는 개념 및 사고와 관련된다는 측면으로 인해 그 사이 생략되었다. 언어사전이라는 옷을 입히기 위해 일종의 진공멸균상태에 머물게 된 것은 아닌지 반추할 필요가 있다. 유추 사전은 단순히 어휘 의미의 이해 및 해석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의 교육적 목적, 즉 독자의 어휘력 증진 및 고급화를 목표로 한다. 어의적 접근 방식이 아닌 명칭론적 방법론을 사전에 적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전의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사전을 적극적으로 외국어 교육에 활용할 도구로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 Study on the structure and principles of analogical dictionaries

-P. Boissière's *French Analogical Dictionary* and beyond-

LEE, Hyunjoo(Incheon Natl. University)

The analogical dictionary not only aims at the understanding and simple interpretation of word meanings, but also has an educational objective, namely, the improvement and enrichment of the vocabulary of dictionary users. It applies an onomasiological methodology rather than a semasiological approach. This allows for the rediscovery of the potential of this type of dictionary and for it to be conceived as an active tool in education. Despite this, research on analogical dictionaries is rare,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may be due to the scarcity of examples of dictionaries in our country. In France, from the 19th century onwards, analogical dictionaries were published with the aim of combining lexicographical knowledge with vocabulary and raising the language level of ordinary citizens, following the 18th-century encyclopedia. Since then, French dictionaries have undergone numerous formal evolutions. Throughout this transformation process, the characteristics of analogical dictionaries have persisted to this day, which also constitutes an original feature of French dictionaries. Analyzing these examples could lead to reflections on new models of dictionaries.

**Key words** : analogy, analogical dictionary, semantic relation, semantic fields, Boissière, Le Petit Robert, Le dictionnaire analogique Lourousse

## [참고문헌]

### ■ 사전류

韓國佛語佛文學會, 『MODELE 佛韓中辭典』, 三和出版社, 1988.

정지영·홍재성, 『동아 프라임 佛韓辭典』, 두산동아, 2003.

Boissière, P., *Dictionnaire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Répertoire complet des mots par les idées et des idées par les mots*, Paris, A. Boyer, 1862.

*Le Grand Robert de la langue française. 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2e éd. par A. Rey, Paris, Le Robert, 9 vol. 1985/2001.

*Le Petit Robert. 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1ère édition, réd. par A. Rey, Paris, Société du Nouveau Littré, 1967.

*Le Petit Robert. Dictionnaire alphabétique et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réd. par A. Rey, Paris, Le Robert, 2019.

Genouvrier, É., Désirat, C. & Hordé, T., *Nouveaux dictionnaire des synonymes Larousse*, 1977.

Niobey, G. et al., *Nouveau dictionnaire analogique Larousse*, Paris, Larousse, 1979/2007.

Hatzfeld, A. & Darmesteter, A. (1824-1990) *Dictionnaire général de la langue française du commencement du XVIIe siècle à nos jours : précédé d'un traité de la formation de la langue*, Paris, Librairie CH. Delagrave.

Tounier, J. & Tounier, N., *Dictionnaire de lexicologie française*, Paris, Ellipses, 2017.

### ■ 단행본

호프스태터, 더글라스 & 샹데, 엠마누엘, 『사고의 본질 - 유추, 지성의 연료와 불길』, 김태훈 옮김, arte(아르테), 2017.

홍종선 외. 『국어사전학 개론』. 제이앤씨, 2017.

Bordas, É., *Les chemins de la métaphore*, Études littéraires Recto-verso, PUF, 2003.

- Cappiello, G., *Le dictionnaire analogique de la langue française*, Hermann, 2016.
- Dotoli, G., *La construction du sens dans le dictionnaire*, Schena Editore/Hermann Éditeurs, 2018.
- Pruvost, J., *Les dictionnaires français : outils d'une langue et d'une culture*, OPHRYS, 2006.
- Rey, A., *De l'artisanat des dictionnaires à une science du mot. Images et modèles*, Armand Colin, 2002.
- Rey-Debove, J., *Étude linguistique et sémiotique des dictionnaires français contemporains*, The Hague, Mouton, 1971.
- Robert, P., *Aventures et mésaventures d'un dictionnaire*, Paris, Société du Nouveau Littré, Le Robert, 1966.
- Robert, P., *Au fil des ans et des mots : les Semailles*, Paris, Robert Lafont, 1979.

■ 논문 및 기타 자료

- 하영동. 「로베르의 언어 대사전 -『프랑스어 알파벳순 유추 사전』의 탄생과 사전학적 특징 연구」, 『용봉인문논총』, 제50집, 2017, 163-189쪽.
- Hilger, E., “L’analogie est-elle plus explicite que la métaphore?”, *Langue française*, 189/1, 2016, pp. 67-86.
- Rey, A., “La renaissance du dictionnaire de la langue française au milieu du XXe siècle : une révolution tranquille”, *Les dictionnaires Le Robert. Genèse et évolution*, (dir.) M.C. Cormier, A. Francoeur & J.-C. Boulanger, Les Presses Universitaires de Montréal, 2003, pp. 88-99.
- Rey-Debove, J. “Le traitement analogique dans le dictionnaire monolingue” *Wörterbücher, dictionnaires, dictionnaire. Encyclopédie internationale de lexicographie*, ed. F.J. Hausmann et al. t.1. De Gruyter, Berlin/N.Y., 1989, pp. 635-639.
- Rey-Debove, J. “La philosophie des dictionnaires. Le Robert ou le chemin de l’intelligible”, *Les dictionnaires Le Robert. Genèse et évolution*, (dir.) M.C. Cormier, A. Francoeur & J.-C. Boulanger, Les Presses Universitaires de Montréal, 2003, pp. 100-109.